

## 깔끔하고 쉬운 문학 만점 팁- 2주차 피드백2

### 1.문학 문제의 본질

#### 1) 내용 일치

함축적 언어를 활용하는 문학의 특성상 그 표현과 의미는 '1 대 多'의 관계를 맺음  
올바른 이해는 이 관계 중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을 파악하고 구체화하는 것임  
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개인적 맥락에 의존할 수 밖에 없  
기에 문제로 등장하니 않음

따라서 문학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표현의 유무 자체를 질문

만약 표현과 함축적 의미를 묻더라도 보기문제를 통해 물을 수밖에 없음

#### 2) 보기 풀이 방법

앞서 말한 표현과 의미의 관계 때문에 대부분의 문학 지문은 보기와 함께 제시되며  
이는 문학에서 킬러 문제로 여겨짐

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

##### ①보기 독해

보기를 독서 지문 독해하듯이 키워드(주로 첫 주어)동그라미, 서술부 밑줄& 문단이  
끝나면 서술어만 한번 쪽 연결해서 읽어주기

##### ②보기와 글을 결합해 내용일치

보기와 글을 더해서 내용일치 진행 만약 'p→q' 구조에서 하나라도 보거나 글에서 나  
오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면 틀린 것

##### ③논리적 고민을 하고 있다면 멈추기

틀린 선지도 3번 정도 읽으면 답인 것처럼 느껴짐. 그 이유는 글을 읽으면서 생기는  
논리적인 연결고리들 때문.

여성인물이 남자를 혼내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면 되는데 '여  
성인물의 행동은 남성적 행동이고 이 남성적 행동이 결국 그녀의 지위를 높였음으로  
여성 인물은 가부장적인 질서체계에 동조하고 그 체계자체를 인정함으로써 가부장적  
사회를 강화 했구나'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됨

여러 단계를 거친 논리적 고민과 이 과정에서 첨가되는 남성적 행동과 동조라는 변수  
는 버려야 할 것!

#### 3)피드백

##### ①P&Q가 나와있다면 맞는지 확인하라는 말을 어떻게 적용할까?

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A→A'에서 과연 A'이 진짜 A와 관련이 있는가  
하는 문제. A'이라는 내용을 보기에서 봤지만 이것이 앞쪽에 제시된 A와 과연 관련이  
있는지를 궁금해 함. 이럴 경우 A'=B라는 논리구조를 만들어 오답이라고 파악하고 잘

못된 답을 고름

만약 A'이 분명히 보기에 있다면//명확하게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린다면//만약 이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세모치고 그냥 넘어가기!

②그렇다면 보기에 있다고 다 맞는 소리인가?

아니다

명확하게 A→B'구조라면 이것은 독서지문 특히 비교재도가 많은 에서 많이 쓰는 범주의 오류 문제이다. 이 선지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. 자연과 세속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문제와 보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이다,

만약 보기 문단속에 비교 대조가 있다면 혹은 자연과 세속, 천상계와 지상계, 꿈과 현실, 이승과 저승, 이상향과 현실 등의 이분법적 구조가 있다면 무조건 나오는지만 고민하기 보다는 2초정도 범주까지 고민하자

## 2.문학 개념의 적용

### 1) 박인로, 누항사// PQ 적용

북창(北窓)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 
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돕는다  
아침까지 울적하여 ㉠먼 들을 바라보니  
즐기는 농가(農歌)도 흥 없이 들린다  
세정(世情)\*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 
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 
두 주먹 비게 쥐고 물정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니  
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 
하물며 교외(郊外)에서 취(醉)할 뜻을 갖을쏘냐  
아까운 저 쟁기는 벗보임도 좋을시고  
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사리 갈련만은  
㉡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 
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 
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라  
봄갈이도 끝나간다 후리 쳐 던져두자  
강호 한 꿈을 끈 지도 오래려니  
㉢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 
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할사  
㉣훌륭한 군자들아 낚대 하나 빌려스라  
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 
㉤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

1. <보기>를 참조하여 (나)의 ㉠~㉢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사대부들이 궁극적으로 **지향했던 삶**은 세상에 나아가 **태평성대를 구현하는 데** 힘을 보태는 것이었으며, 이것을 **자신들의 직분이라고** 생각했다. 박인로도 이와 같은 삶을 지향했으며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, **그렇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.** 그렇다고 ①**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종하며 살 수도 없었기에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.**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그가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치가 **‘안빈낙도(安貧樂道)’**이다. 즉 안빈낙도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에서 ②**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.(반드시 끝나고 서술어 한번만 연결해주기)**

① ㉠은 화자와 **세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한 것으로** 볼 수 있겠군.(보기에 나와있음)

② ㉡은 **사대부로서의 직분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**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.(보기에 나와있음, 농사는 세속적인 것 아닌가요 등의 자신만의 사고를 논리를 변수를 만들지 말기! 결국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화자와 같음)

③ ㉢은 화자가 **선비로서의 고결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**로 볼 수 있겠군.(무조건 글과 내용을 합하여 내용일치 하기, 글을 보면 명시적으로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며 잊었다고 바로 나옴, 평생 고결한 삶을 살았다는 등의 나오지 않은 이야기 하지 말기)

④ ㉣은 **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 주는군.**(없음, 보기에도 글에도)

⑤ ㉤은 **안빈낙도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** 볼 수 있겠군 (보기에 있음).

CF) 문제풀이 팁-알아만 두기!

문학 문제는 무조건 내용일치

ㄱ,ㄴ,ㄷ 등의 내용일치의 근거는 주로 앞뒤에 등장

2)윤선도, 만흥// PQ적용+ 비교 대조

윤선도, 만흥

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

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

어리고 향암(鄕闇)\*의 뜻에는 내 분(分)인가 하노라

보리밥 푼나물을 알맞초 먹은 후에

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 
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 있으랴  
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뒀을 바라보니  
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하랴  
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

1.<보기>에 근거하여 (나)를 해석해 보았다. 적절한 해석으로보기 어려운 것은? [3점]

<보기>

사대부 시인들의 자연 예찬은 벼슬살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나 태도와 관련이 있다. 자연 예찬의 노래는 벼슬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①겪은 쓰라림, 즉 정치적 시련,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지럽게 변하는 현실, 그리고 그에 따라 변신을 거듭하는 인간 무리 등에서 벗어나고 싶은 반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. 그래서 이러한 노래에는 ‘벼슬 따위는 할 수 있어도 안 한다.’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과 ②자연 속에서 도를 추구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가 들어있다.(문단 끝나고 서술어만 빠르게 다시 읽자)

- ① ‘산수’, ‘바위’ 등으로 구체화된 자연은 세월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성의 표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.(보기에 나온, 자연은 NOT 세속, NOT 변신)
- ② 자신을 ‘어리고 향암’이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벼슬살이에 대한 경계의 의도가 담겨있다.(보기 나온)
- ③ ‘보리밥 풋나물’은 벼슬을 추구하던 과정에서 작가가 겪은 정치적 시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.(나오지만 틀림, ‘자연= 세속’이라는 비교 대조를 무시한 처사)
- ④ ‘그 남은 여남은 일’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자연에서 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를 드러내고 있다.(보기 나온)
- ⑤ ‘뒀’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‘님의 말씀과 웃음’보다 우위에 둔 것은 변신을 거듭하는 인간에 대한 반발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. (자연 좋음= 세속에 대한 반발, 보기 나온)

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

서성수 국어

오르비 교대점